

정보검색 산업의 도약 기틀 마련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달 14일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김 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검색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정보검색사가 앞장서야 하며, 국내 정보검색 분야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어 향후 동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

양질의 인력을 양성한다

김수천 도원컨설팅 대표는 동위원회 설립취지에 대해 “정보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한 정보검색인의 질적 향상과 인력 양성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정보검색 분야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사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정보검색 분야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관련 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로 활성화시켜 스스로 질적인 향상을 이루었지만, 국내 정보검색 분야는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위원회가 주력할 분야가 국내 정보검색 분야의 열악한 환경개선임을 언급했다.

즉, 앞으로 국내 정보검색 분야의 뜻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정통성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보검색 분야의 양적, 질적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향후 정보통신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확대될 해

외 데이터베이스 업체의 국내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미래지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김호 과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위해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이때 정보이용자를 대표하여 이용자 측에서 일할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정보검색위원회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검색 분야의 질적인 향상과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보이용자를 대변하여 검색 전문가로서 활동할 동위원회의 출범과 역할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기대가 된다고 했다.

한편,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센터의 의지가 동위원회 설립에 내재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보검색위원회와 같은 관련 동호인 모임을 적극 마련하는 동시에 이들 모임이 지속적인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나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KISEC 창립을 계기로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동호인 모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KISEC 창립총회 모습.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지도 확산 및 인력 양성 주력

한국정보검색위원회(KISEC : Korea Information SEarching Committee)는 국내에 정보검색 관련 분야를 널리 알리고 동 분야에 대한 기술 보급과 전문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같은 관심사를 갖는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정보 이용자를 대표하여 정보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32명의 정보검색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초대 위원장에 정영미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부 위원장에 김수천 도원컨설팅 대표, 간사에 손영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부장과 김휘출 한양대 도서관 사서를 각각 임명하고 각 분과위별로 위원장을 선정했다. 동위원회의 분과위는 기획분과를 비롯 대외협력분과, 교육분과, 홍보출판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위별 업무는 ▲기획분과는 사업기획과 예산편성, 정책활동 업무와 각종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각종 규약의 제/개정을 주로 다루게 되며 ▲대외협력분과는 국내/외 유관 단체 및 전문가 교류, 컴퓨터 관련 동호회 활동, 관련 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분과는 교육 주관 및 교재 발간을 위시로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과 양성을 주관하며 ▲홍보/출판분과는 위원회와 관련된 대외홍보를 위시로 출판 기획업무, 조사업무 및 행사지원, 자체 홈페이지 운영 등을 맡게 된다. **DIC**

정영미 한국정보검색위원회 초대 위원장

“정보검색의 실용화에 앞장 서겠다”



▲ 정보검색 분야는 이론과 실무가 겸비되어야 하는데 KISEC은 이런 요건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태동됐다고 밝히는 정영미 초대 위원장은 위원들의 지속적인 연구자세와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먼저 한국정보검색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인가.

정보자원은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자원이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하는 일이 21세기가 추구하는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KISEC은 이 분야와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각종 연구 및 사업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생각이 다.

▶ 정보검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보검색 서비스의 역사와 국내 정보검색 서비스의 현황을 설명해 달라.

정보검색 서비스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다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유도했고 이에 따른 온라인 정보검색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붐이 일어난 인터넷의 이용은 온라인 정보검색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정보검색 환경은 아직 초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보검색에 관한 관심과 정보검색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만족시킬 만한 토양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 열악한 국내의 정보검색 환경은 KISEC의 활약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국내 정보검색 서비스 산업에 있어 KISEC의 위상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보검색 분야는 이론과 실무가 함께 발전해야 하는 분야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검색 발전을 위해 정보검색 전문가로 현장에서 열심히 뚫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KISEC를 창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모임인 KISEC의 역할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초대 위원장은 위상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힘겨운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ISEC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

KISEC은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킨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정보검색 전문지를 발간할 생각이다. 또 정보검색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검색 이론 및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에 앞장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연구자세와 적극적인 참여,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